百濟 武王代 益山 遷都說의 再解釋

李道學* 

목차

1. 머리말 
2. 「観世音應驗記」の尺度関連 기사에 대한 검토 
3. 益山遷都 가능성의 검토 
4. 益山遷都와 邑北城 遷都背景 
5. 歷史 全道 반대론의 문제점 
6. 맺음말 

1. 머리말 

百濟 武王代의 益山 遷都說이 제기된 것은 일본 京都大學 教授였던 牧田謙亮에 의해서였다. 그는 중국에서 觀音信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10세기 정도 편찬된 「観世音應驗記」를 日本 京都 소재 青蓮院에서 발견하였다. 이 후 그것에 대한 주석과 연구를 한 「六朝古逸観世音應驗記の研究」를 1970년에 발간하면서 그 말미에 백제 관련 자료 2권을 소개하였다. 그로 하여 「観世音應驗記」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최근에 완결된 바 있다。

* 한국전통문화학과 문화유적학과 교수. 
1) 牧田謙亮, 1977, 「百濟 益山遷都에 對한 文獻資料」 「第3회 馬韓百濟文化學術會議」, 146~148쪽; 洪潤植, 2003, 「文獻資料를 통해서 본 百濟 武王의 遷都史實」 「益山的先史와 古代文化」, 318쪽.
2) 洪潤植, 舊논문, 315~329쪽.
무왕의 익산 천도 문제에 관해서는 천도설과 준비에만 그쳤다는 미완의 왕도설, 천도설을 반대하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졌다. 이와 더불어 문헌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익산 주요 인물 일대에 대한 발굴 성과를 원용해서 익산 천도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익산 천도설은 명확하게 축적된 마아진 바 없는 것 같았다. 본고에서는 익산 천도설의 근거 자료인『觀世音應驗記』의 관련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觀世音應驗記』의 천도 관련 기사에 대한 검토

『觀世音應驗記』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지는 정관 13년(639)에 제석정사가 화해를 잔뜩은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제석정사 목록 밑의 초석에 장치되었던 종종의 七寶와 佛寺利 및 동관 금관과연경 중 오직 불사리병과 과야경을 낳았던 돌석이 그대로 남아 재난을 모면했다는应驗 기사가 되었다. 이러한應驗 기사 속에 그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비주란에 무왕대의 천도 기사가 아래와 같이 수록되어 있다.

A. 백제 武廣王이 枢樞閣地로 천도하고 새로 精舍를 조명했다. (百濟武廣王遷都枢樞閣地 新營精舍)

B. 정관 13년 기때는 되는 해 겨울 11월에 하늘에서 큰 비락과 비가 내려 드디어 帝釋精舍가 재해를 입어 佛堂과 7층 淚塀 내지는 廳房이 일제 모두 타버렸다.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
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帝釋精舍 佛堂七級浮塀 乃至廳房 一皆燬盡)

C. 廳房의 조석간에는 종종의 七寶가 있었다. 역시 불사리 채색의 수정병 또는 구리로 만든 총이에 금관과연경을 적어놓은 窓紋과 이들을 담은 목질이었다. 조석간은 없고 보니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오직 불사리병과 금관과연경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정병은 안팎이 모두 보이지만 두경이 역시 옷적이지 않았다. 사리는 모두 없어서 나간 곳을 몰

3) 中嶌, 1994,『百濟史』에 있어 盆山의位置 玉川. 金三龍博士古稀紀念『馬韓・百濟文化」彌勒思想』, 460쪽.
4) 익산 천도와 관련한 선구적인 업적으로는 다음의 논고를 빼놓을 수 있다. 郭滿植, 1979,『百濟 帝釋寺址의研究』『百濟研究』4, 9~16쪽; 金三龍, 1977,『百濟의 盆山遺都와 그 文化的 性質』『馬韓・百濟文化』2, 9~23쪽.